

명확한 것을 추구했던 화가  
『푸생』



박희숙

- 서양화가
-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미술석사
- 주간 이코노믹 리뷰 『박희숙의 명화읽기』 연재
- 월간 조선 『인물연구』 연재
- 강릉대학교 산업공학과 출강

철학적이고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회가 감성적인 것을 원한다고 해도 자신의 성향을 바꾸기 힘들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어 자신의 성향을 감추고 있다. 감성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 반기를 들었던 화가가 푸생이다. 그는 자신이 생각과 논리를 펼쳐 보여 고전주의의 틀을 세웠다.

푸생은 프랑스에서 이름을 얻기 시작하지만 지식에 대한 목마름으로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고전을 연구하기 위해 로마로 이주한다. 푸생은 로마에서 라파엘로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 연구에 몰두함으로써 고전주의 경향이 짙어진다.

푸생의 고전주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대표적인 작품이 <사비니 여인의 약탈>이다. 이 작품은 플루타르크에 의해 전해지는 로마 기원에 관한 전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로마 건국의 아버지 로물루스는 인구의 불균형으로 로마에 여인들이 부족해지자 이웃의 사비니 족을 습격해 여인들을 약탈하기 위해 바다의 신 넵투누스 축제를 열었다. 로마의 군인들은 축제에 온 사비니 여인들을 강탈한 후 남자들을 쫓아버린다. 그 이후 로물루스가 사비니의 왕까지 겸하게 된다.

로물루스는 붉은 색 옷을 입고 거대한 건물 위에서 있고 화면 왼쪽 푸른색 옷을 입은 여인이 자신을 안고 가는 로마 병사에게 저항하고 있다. 로마 병사

발밑에는 잡혀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

로마 역사에 따르면 사비니 여인들 중에 유부녀가 한명 있었다고 한다. 그녀가 로물루스가 결혼한 헤르실리나다. 이 작품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그려 넣음으로서 푸른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헤르실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화면 오른쪽 한 아버지가 딸을 끌고 가는 젊은 로마 병사에게 달려들고 있고 딸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다. 로마병사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노인을 제거하기 위해 단도를 들고 있다. 이 장면과 대조적으로 화면 가운데 갑옷에 푸른 옷을 입고 있는 로마 병사와 그 옆에 사비니 여인은 나란히 걸어가 있는데 두 사람은 로마와 사비나 여인의 화해를 암시한다.

푸생은 이 작품에서 인물의 몸짓이나 자세, 인물의 표정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푸생은 신화와 전설, 성서 등 고전적인 주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연출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사비나 여인의 약탈>-1633~34년경, 캔버스에 유채, 154\*209,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푸생이 신화를 통해 자신의 교양과 지식을 나타내고자 했던 작품이 <시간이 연주하는 음악에 맞춘 춤>이다.

화면 전면에 3명의 여자와 남자가 군무를 추고 있고 오른쪽의 노인은 리르를 연주하고 있으며 어린아이가 모래시계를 가지고 놀고 있다. 화면 오른쪽 어린아이는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고 그 뒤로 한쪽에는 젊은이의 얼굴을, 다른 쪽에는 노인의 얼굴을 한 흉상이 솟아 있다.

이 작품에서 인물들은 계절을 상징하고 있는데 흰색의 옷을 입은 여인은 봄을, 머리에 장미 화관으로 장식한 여인은 여름을, 등을 돌리고 있는 포도나무 덩굴로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남자가 바쿠스 신으로 가을 상징하고 머리에 노란 터번을 쓰고 있는 여인이 겨울 상징한다. 각각의 인물들은 계절뿐만 아니라 가난(가을), 노동(겨울), 부(봄)와 행복(여름)을 암시하면서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불행도 없는 인생을 나타낸다.

모래시계와 비눗방울을 가지고 놀고 있는 어린아이는 덧없는 인간의 인생을 상징한다. 또한 두 얼굴의 흉상은 시간의 흐름속의 변화가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푸생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인물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목가적인 로마의 전원애 중점을 두었다.

니콜라 푸생<1594~1665>은 프랑스 정부가 루브르 궁정 장식을 위해 부르자 프랑스로 돌아온다. 그는 루이 13세를 위해 생제르맹 성당의 장식화를 그린 것을 계기로 궁정화가로 임명된다. 하지만 다른 화가들의 질투와 모함에 휘말리면서 푸생은 로마로 다시 이주해 성공적인 삶을 마무리 한다.



<시간이 연주하는 음악에 맞춘 춤>-1635~1636년, 캔버스에 유채, 런던 월리스 컬렉션 소장